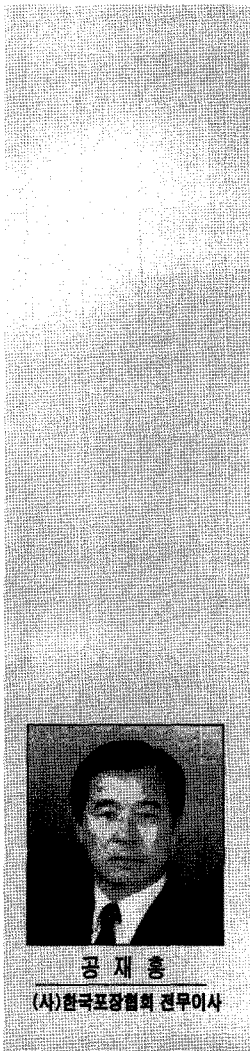




제2회 「Seoul Pack 2012」 개최에 즈음하여

국내 포장산업은 포장인들 스스로 발전시켜야



공 세 홍

(사)한국포장협회 전무이사

1984년 대한무역진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신)의 한봉수 당시 사장께서 해외 순방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포장기술 관련 대형 국제 전시회가 대성황을 이루고 있고, 포장관련 신제품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되어 개최국의 포장산업 발전은 물론, 포장관련 주변 분야까지 활성화 한다는 점을 파악, 「왜 한국은 급성장하고 있는 경제 규모에 비해 그런 전시회가 없는가?」라는 언급에, 무역진흥공사 전시부에서 전시개최 계획 수립과 함께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한국디자인진흥원 전신)」를 공동 개최의 파트너로 하여 1985년 6월 11일 '제1회 한국국제포장기자재전'을 개최한 것이 포장관련 전문 국제 전시회의 시초이다.

그 이후 2년 주기로 개최되어, 국내외의 많은 관련자들의 참관으로 국내 포장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나, 5회제인 1993년을 끝으로 해외 홍보 부족과 해외 업체 참가 부진 등으로 막을 내리고 민간 전시전문 업체인 경연전람(주)이 이어받아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공동 주최 단체간의 불협화음과 포장산업과 관계가 없는 타분야 단체들의 참가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세계는 정보화 시대의 정점을 이루고 있으며 인터넷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온갖 양질의 정보들을 과거에 비해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고, 각 국은 이의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사이버 전쟁'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지만, 모든 신제품을 출시하여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인 기술 수준 및 향후 개발 방향 등을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 획득 방법은 '전시회' 만한 것이 아직은 없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우리 속담의 언급처럼. 그러기에 전시산업은 전 세계 어느 곳이던 여전히 성행한다.

그 일례로 거의 반세기를 이어오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PACK-EXPO(미국 시카고, 규모 : 7,000Booth 내외), INTER-PACK(독일 뒤셀도르프, 규모 : 6,500Booth 내외), TOKYO-PACK(일본 도쿄, 규모 : 3,000Booth 내외) 등 세계 3대 포장관련 메이저 전시회를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국이지만, 유독 포장관련 국제 전시회만큼은 국력에 어울리지 않게 동남아 개발도상국에까지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선진 각국과 동남아 지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아니라는 데 있다. 또한 아직도 정책 입안자들이 포장산업은 일종의 부차재정으로 오인하고 있고, 상품에 당연히 포장이 동반한다는 원초적이고 일반적인 지식만으로 포장산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내 포장산업이 연간 15조원을 넘나드는 엄청난 산업의 한 장르이며, 일종의 비가격 경쟁 분야임에도 말이다.

지난 2009년 10월에 (사)한국포장기계협회 단독주최로 개최되었던 「제1회 서울팩(Seoul Pack 2009)」은 기획 당시 경험이 없는 단체가 처음으로 주최한다하여 주위에선 위험한 모험이라며 우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KINTEX 전시장 1개홀을 추가로 대여하는, 대성공을 거두

었다.

이에 (사)한국포장협회가 2012년 제2회 전시회부터 공동 주최자로 참여를 결정하여 전시내용이 종전의 포장기계 주류에서 연포장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국제 종합 전시회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3회, 제4회부터는 포장관련 타 단체를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향후 TOKYO-PACK을 능가하는 전시회를 이 땅에 정착시킨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내 포장산업은 정부의 도움없이 우리 포장인들 스스로 발전시켜야 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포장인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해외 우수 전시회에 참관하여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바이어들을 직접 한국으로 오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국내 전 포장산업체에서 많은 참여를 기대하여 「제2회 Seoul Pack」 전시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바이다. ☺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